

음악 기초이론

담당강사: 이인경



목 차

강의 회차	강의 제목
1 회	기보법과 기호
2 회	음표와 쉼표
3 회	박자
4 회	주법에 관한 표, 꾸밈음, 줄임표
5 회	음정
6 회	음계
7 회	화성

1 회차	기보법과 기호
------	---------

학습목표

- 보표와 음자리표를 이해할 수 있다.
- 음악에 쓰이는 음들의 높기와 이름을 구별할 수 있다.
- 변화표의 종류를 이해하고 효력을 알 수 있다.

강의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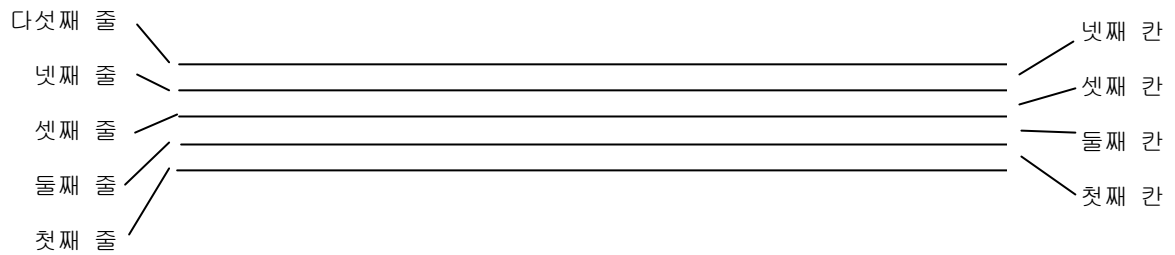
- 보표
- 음자리표
- 큰보표와 모음보표
- 원음과 사이음
- 온음과 반음
- 사이음의 이름
- 조표로 사용되는 표
- 임시표로 사용되는 표
- 변화표의 효력
- 단이름한소리

1. 보표와 음자리표

① 보표 (Staff)

음표를 적기 위한 다섯 줄에 음자리표를 표시한 것을 보표라고 한다.

음표는 이 다섯 줄과 그 사이의 칸에 적게 되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다섯 줄과 네 칸만으로는 제한된 수의 음 밖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이 5 선보다 높은음이나 낮은음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보표의 위나 아래에 5 선과 서로 간격이 고른 짧은 **덧줄**을 긋는다.

The diagram illustrates musical notation using ledger lines. Above the staff, there are seven sets of notation, each consisting of a short line (ledger line) and a note. The notes are labeled from top to bottom: 위 (Above), 위 (Above), 위 (Above), 위 (Above), 위 (Above), 위 (Above), and 위 (Above). Below the staff, there are seven sets of notation, each consisting of a short line (ledger line) and a note. The notes are labeled from top to bottom: 첫째 칸 (First space), 첫째 줄 (First line), 둘째 칸 (Second space), 둘째 줄 (Second line), 셋째 칸 (Third space), 셋째 줄 (Third line), and 넷째 칸 (Fourth space). Below the staff, there are seven sets of notation, each consisting of a short line (ledger line) and a note. The notes are labeled from top to bottom: 넷째 칸 (Fourth space), 셋째 줄 (Third line), 셋째 칸 (Third space), 둘째 줄 (Second line), 둘째 칸 (Second space), 첫째 줄 (First line), and 첫째 칸 (First space).

덧줄의 수에 제한은 없으나, 너무 많이 붙이면 읽기에 매우 불편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옥타브 기호(8va Alta 또는 8va Bassa, 이를 줄여서 8va, 또는 8로 기입한다)를 사용하여 옥타브 높게 또는 낮게 연주하도록 한다.

8va Alta는 옥타브 높게, 8va Bassa는 옥타브 낮게라는 뜻인데,
이를 8va 또는 8로만 적고 점선의 방향으로 위 아래를 표시하기도 한다.

(1) 8va Alta

(2)

(3) 8va Bassa

15

(4)

보표는 실제적인 용도에 따라서 크게 작은보표, 큰보표, 모음보표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작은보표는 한 악기 또는 한 성부를 위해 하나의 5선만으로 된 독립적 보표를 말하며, 때로는 관현악이나 합창곡의 파트보표라고도 한다.

② 음자리표 (Clef)

다섯 줄에 기입한 음표만으로는 기준이 되는 음을 지정하고 있기 못하기 때문에 음의 높이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음높이를 나타내기 위해 5선보의 왼쪽 끝에 표시한 것이 음자리표이다.

음자리표는 크게 보아 높은음자리표(Treble clef, G clef), 낮은음자리표(Bass clef, F clef), 그리고 가온음자리표(Movable clef, C clef)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음자리표는 7개 원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C.G.F 음의 자리를 정하여 준다.

가) 높은음자리표 (Treble clef, G clef)

높은음자리표는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바이올린음자리표(Violin clef)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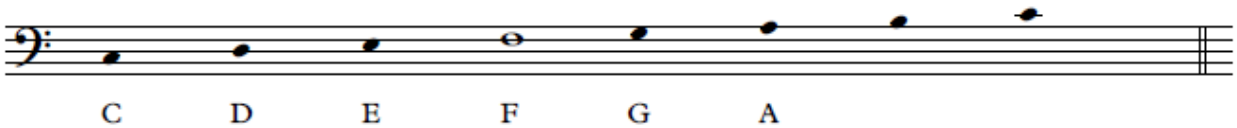
이것은 사음 즉, G 음의 자리를 정하여 준다. 5 선의 둘째 줄 음이 G 음이 되어 나머지 음들의 위치가 주어지며, 높은음자리표를 그릴 때는 둘째 줄에서 시작하여 그려야 한다.



나) 낮은음자리표 (Bass clef, F clef)

이것은 바음, 즉 F 음의 자리를 정하여 준다. 5 선의 넷째 줄이 바음이 되므로 낮은음자리표를 그릴 때는 넷째 줄에서 시작해서 그려야 하며, 이것은 낮은 음들의 표현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베이스와 같은 낮은 남성의 기보 뿐만 아니라, 피아노, 오르간, 그리고 다른 저음악기에 적용한다.



다) 가온음자리표 (Movable clef, C clef)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대개의 악기는 높은음자리표나 낮은음자리표만 가지고도 불편하지 않게 표시할 수 있다. 특정된 악기나 성역에 있어서는 이 두 음자리표만 가지고는 불편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온음자리표는 다섯 줄에 어떠한 자리를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옮겨 적게 함으로써 이 표가 붙는 자리를 가온 다음으로 정한다. 이것은 다섯 줄의 몇 째 줄을 다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소프라노 기호 - 첫째 줄을 **가온 다음**으로 하는 표. 소프라노 음역을 위해서 가장 편리한 자리이나, 높은음자리표와는 실제로 한 줄의 차이 밖에 없으므로 별로 쓰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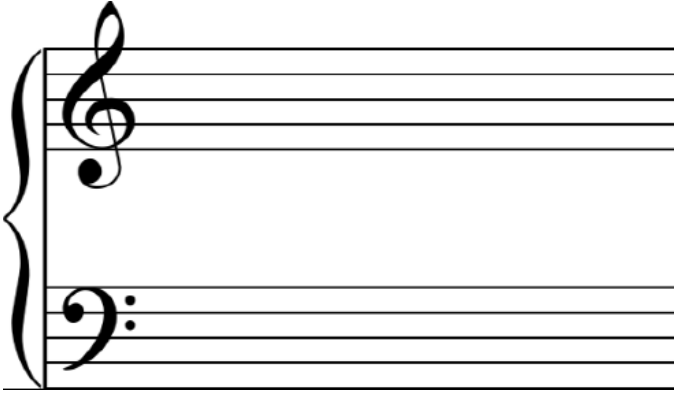
㉡ 알토 기호 - 셋째 줄을 **가온 다음**으로 하는 표. 알토 음역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음표로 기보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비올라, 또는 알토트롬본 등의 중음악기의 기보에 주로 사용된다.

㉢ 테너 기호 - 넷째 줄을 **가온 다음**으로 하는 표. 테너의 음역에 가장 적합하다. 오늘날에는 첼로나 바순의 높은 음역과 테너트롬본의 기보에 사용된다.



③ 큰보표와 모음보표

피아노나 오르간 등의 건반악기와 합창곡에서는 음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를 세로줄과 대괄호를 묶어서 사용하는데, 이를 **큰보표**라고 한다.



피아노나 오르간에서는 대체로 높은음자리표를 오른손, 낮은음자리표를 왼손이 담당하며, 혼성합창일 경우에는 높은음자리표를 여성이, 낮은음자리표를 남성이 담당하게 된다.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를 사용하는 실내악이나 관현악, 각 성부를 독립적으로 적은 합창곡과 같이, 여러 갈래로 된 보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 적은 악보를 모음악표라고 한다.

또한, 각 악기의 악보만 따로 적어 놓은 것을 파트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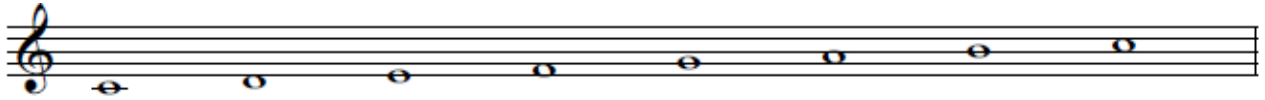
2. 음이름 (Pitch Names)

음악에 쓰이는 음은 그 높이에 따라 수집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음들은 이름을 붙여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음이름이라 한다.

① 원음(Natural tone)과 사이음(Derived tone)

음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기본이 되는 7 개의 음을 원음, 또는 자연음이라 하며, 피아노나 오르간의 흰 건반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원음을 반음 올리거나 반음 내려서 변화시킨 음을 사이음이라 하고, 피아노나 오르간의 검은 건반이 이에 해당된다. 7 개의 원음은 다음과 같이 나라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다.



한국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은
영·미	C	D	E	F	G	A	B	C	
독일	C	D	E	F	G	A	H	C	
이태리	Do	Re	Mi	Fa	Sol	La	Si	Do	
프랑스	Ut	Re	Mi	Fa	Sol	La	Si	Ut	

② 온음과 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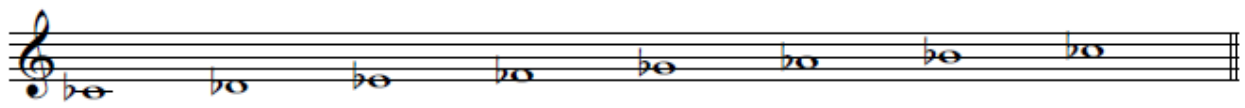
원음의 배열을 보면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이 있다. 즉 마와 바 사이, 나와 다 사이는 좁고 그 밖의 음은 좁은 부분의 두 배가 되는데, 좁은 부분을 반음, 넓은 부분을 온음이라고 한다.

③ 사이음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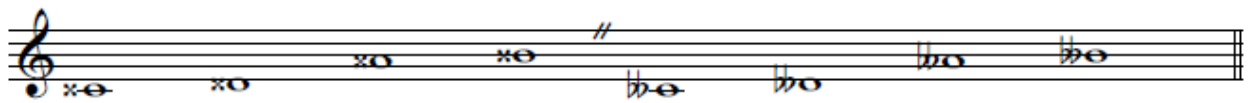
원음에서 반음 올리거나, 내린 사이음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한국 올림다	올림라	올림마	올림바	올림사	올림가	올림나	올림다
영·미 C#	D#	E#	F#	G#	A#	B#	C#
독일 Cis	Dis	Eis	Fis	Gis	Ais	His	Cis



한국 내림다	내림라	내림마	내림바	내림사	내림가	내림나	내림다
영·미 C♭	D♭	E♭	F♭	G♭	A♭	B♭	C♭
독일 Ces	Des	Es	Fes	Ges	As	B	Ces



한국 겹올림다	겹올림라	겹올림마	겹올림바	겹내림다	겹내림라	겹내림가	겹내림나
영미 C##	D##	A##	B##	C♭♭	D♭♭	A♭♭	B♭♭
독일 Cisis	Disis	Aisis	Hisis	Ceses	Deses	Ases	Heses(Bes)

3. 변화표

변화표란 원음을 그 자리에 둔 채로 반음 올리거나 반음 내릴 때,
또는 변화된 음을 원음으로 되돌릴 때 쓰는 표를 말한다.

변화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변화표	변화표 이름
#	올림표
##, X	겹올림표
b	내림표
b b	겹내림표
♮	제자리표

변화표는 조표로 사용될 때와 임시표로 사용될 때가 있다.

① 조표로 사용되는 표

올림표 (#) - 원음을 반음 높인다.

내림표 (b) - 원음을 반음 내린다.

조표로 쓰일 때는 악곡 첫머리의 음자리표와 박자 사이에 적는다.

② 임시표로 사용되는 표

올림표 (#)

내림표 (b)

겹올림표(x) - 반음 올려진 음을 다시 반음 올린다.

겹내림표(b b) - 반음 내려진 음을 다시 반음 내린다.

제자리표(♮) - 반음 올려지거나, 반음 내려진 음을 원음으로 돌려 놓는다. 즉 변화표의 효력을 취소시킬 때 붙인다.

③ 변화표의 효력

가) 조표로서의 효력

조표로서 붙은 변화표는 옥타브 차이에 관계없이 해당 음표와 음이름이 같은 음에는 모두 효력이 있고, 조가 바뀌지 않는 한 끝까지 유효하다. 또한 음자리표가 바뀌어도 같은 음이름에는 유효한다.

나) 임시표로서의 효력

임시표가 붙을 때는 같은 마디 안에서의 해당 음표에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마디가 바뀌거나 같은 마디일지라도 옥타브가 높거나 낮을 때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시표나 제자리표를 다시 쓰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마디 안에서는 음자리표가 바뀌어도 옥타브 차이가 없는 한 유효하다.

다만, 마디가 바뀔지라도 그 음이 붙임줄로 연결될 때는 효력이 있다.

④ 짝이름한소리

원음을 변화시킬 때, 온음 간격으로 된 두음에 있어서,

아래에서 반음 올린 음과 위에서 반음 내린 음은 그 음이름과 기보는 다르지만 실제의 소리는 똑같다.

반음 간격인 경우에도 원음과 위·아래로 변화시킨 음과 마찬가지로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음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소리는 똑같이 나는 것을 **짝이름한소리** 라고 부른다.



2 회차	음표와 쉼표
------	--------

학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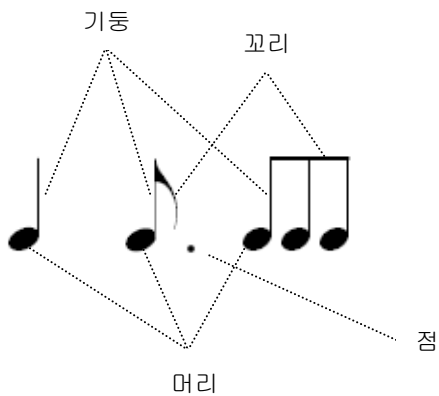
- 음표와 쉼표를 그릴 수 있다.
- 점음표와 점쉼표를 이해할 수 있다.
- 잇단음표를 이해하고 박자를 계산할 수 있다.

강의요약

- 음표
- 쉼표
- 점음표와 점쉼표
- 잇단음표






1. 음표

① 음표의 부분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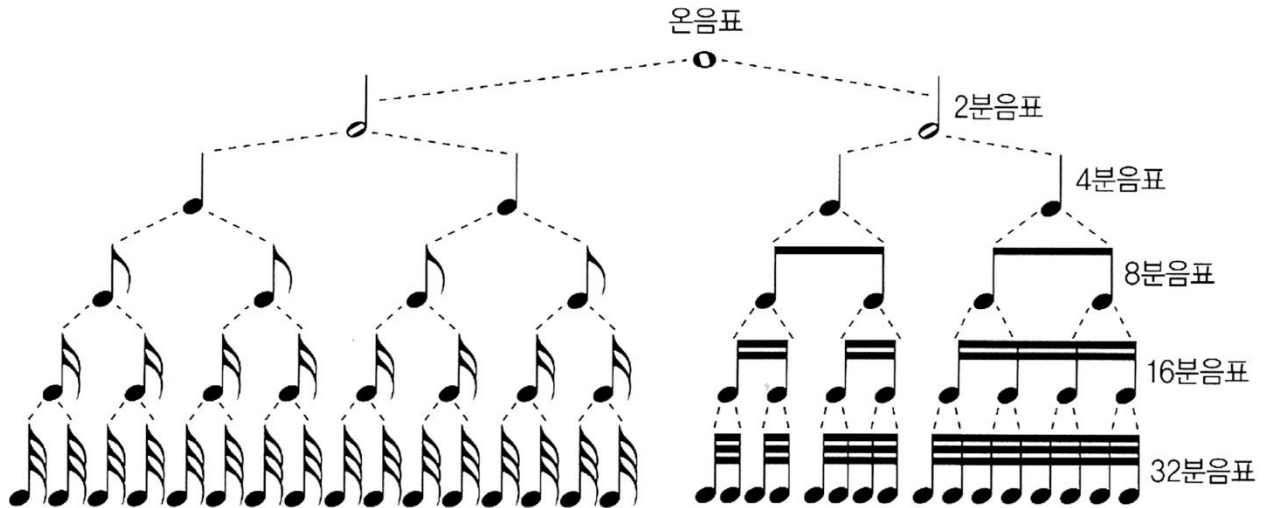


음표는 기둥이 달린 타원형의 흰머리나, 검은머리가 기본이 되고, 그것에 꼬리와 점이 붙음으로써 음의 시가를 길고 짧게 한다.

② 음표의 종류

음표	음표이름	길이(♩를 1 박으로 할때의 비율)
	온음표	4
	2 분음표	2
	4 분음표	1
	8 분음표	1/2
	16 분음표	1/4
	32 분음표	1/8

음표 상호간의 관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③ 음표를 그릴 때의 주의

대개 머리가 셋째 줄이나 위에 있을 때는 기둥을 아래로 굽고, 셋째 줄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기둥을 위로 굽되, 수직으로 부표의 약 세칸만큼 그린다.



기둥이 위로 향할 때는 머리의 오른쪽에 기둥을 붙이고, 기둥이 아래로 향할 때는 머리의 왼쪽에 붙인다.

그리고 꼬리를 가진 음표가 계속될 때는 꼬리를 연결하여 굵은 줄로 그려도 무방하다.

이 경우 음표가 셋째 줄을 중심으로 어느 쪽에 많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 기둥의 방향이 결정된다.

2 성부인 경우, 위 소리는 기둥이 위로, 아래 소리는 기둥이 아래로 향하게 그린다.



2. 쉼표

가) 쉼표의 종류

쉼표	쉼표 이름	길이 (4 분쉼표를 1 박으로 했을 때의 비율)
	온 쉼표	4
	2 분 쉼표	2
	4 분 쉼표	1
	8 분 쉼표	1/2
	16 분 쉼표	1/4
	32 분 쉼표	1/8

마디 전체를 쉴 때에는 박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온쉼표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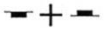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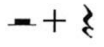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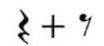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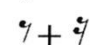
나) 쉼표의 특수 용법

쉼표는 그 박자표에 의하여 박자 단위를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3. 점음표와 점쉼표

음표의 머리, 또는 쉼표의 오른쪽에 1 개의 작은 점을 붙인 것을 각각 점음표와 점쉼표라 하며, 그 길이는 본래의 음표 또는 쉼표의 1.5 배가 된다.

② 점음표와 점쉼표

음표	이름	실제연주길이	쉼표	이름	실제연주길이
	점온음표			점온쉼표	
	점2분음표			점2분쉼표	
	점4분음표			점4분쉼표	
	점8분음표			점8분쉼표	

점음표 또는 점쉼표의 오른쪽에 또 하나의 똑같은 점을 붙인 것을, 각각 겹점음표, 겹점쉼표라 하며, 그 길이는 본래 길이의 1.75 배가 된다. 즉, 앞에 붙은 점의 1/2을 연장하는 것이다.

겹점음표	음표이름	실제의 길이
$\omega..$	겹점온음표	$\omega + \eta + \theta$
$\theta..$	겹점 4 분음표	$\theta + \varepsilon + \text{musical note}$

겹점쉼표	쉼표이름	실제의 길이
$\text{musical rest}..$	겹점 2 분쉼표	$\text{musical rest} + \text{musical rest} + \text{musical note}$
$\text{musical note}..$	겹점 8 분쉼표	$\text{musical note} + \text{musical note} + \text{musical note}$

4. 잇단음표

음표의 시가(時價, 음표의 길이)는 보통 2의 배수로 밖에는 분할할 수 없다.

그러나 리듬의 변화를 주기 위해 하나의 음표를 3등분, 7등분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잇단음표라 한다.

분할되는 음표의 수에 따라 두잇단음표, 세잇단음표, 네잇단음표, 다섯잇단음표,

여섯잇단음표, 일곱잇단음표 등으로 부르고,

그 표시는 해당되는 숫자를 괄호로 묶어서 음표의 위 또는 아래에 나타낸다.

① 여러 가지 잇단음표

민음표



셋잇단음표



다섯잇단음표



일곱잇단음표



점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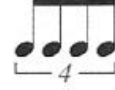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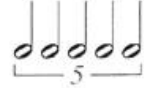
둘잇단음표



넷잇단음표



다섯잇단음표



② 잇단음표의 변형



3 회차	박자
------	----

학습목표

- 박자표를 이해할 수 있다.
- 센내기와 어린내기를 이해할 수 있다.
- 박자의 종류를 이해하고 불규칙한 셈여림을 이해할 수 있다.

강의요약

- 박자의 의미
- 박자표
- 세로줄과 마디
- 센내기와 어린내기
- 박자의 종류
- 불규칙한 셈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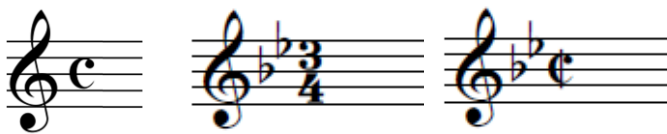
1. 박자의 의미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셈 · 여림의 진행, 또는 장단의 변화있는 진행의 한 단위를 박자라고 한다. 박자는 일정한 박의 수에 따라서 심리적인 센점이 주기적으로 생긴다.

2. 박자표

박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를 **박자표**라 한다. 박자표는 분수 형식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악곡의 맨 처음 음자리표와 조표 다음에 적는다. 이 때 분모는 한 박으로 세는 단위음표의 종류를 나타내며, 분자는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박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예와같이 $\frac{3}{4}$ 박자는, 4 분음표가 단위음표이며, 한 마디 안에 4 분음표가 3 개 있어 3 박을 이룬다는 뜻이다. 또한 4/4 박자를 C, 2/2 박자를 C 로 표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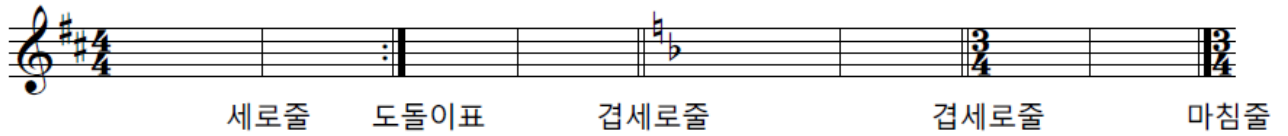


3. 세로줄과 마디

음표만을 나열하면 셈 · 여림을 확실히 구별할 수 없으므로, 셈박의 직전에 줄을 그어서 구별하는데, 이를 **세로줄**이라 한다.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를 **마디**라고 하며, 박자의 최소 단위가 이 안에 포함된다.



이 밖에 두 줄로 그어진 **겹세로줄**이 있다. 이는 악곡의 일부분이 끝날 때, 혹은 박자나 조가 바뀔 때 쓰는 것과, 악곡을 마칠 때 또는 도돌이표에 사용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마침에 사용될 때는 **마침줄**이라 한다.



4. 센내기와 여린내기

악곡이 맨 첫 박, 즉 센박에서 시작할 때는 **센내기**라 하고, 여린박부터 시작할 때를 **여린내기**라 한다.



여린내기일 때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악절도 여린내기로 되어 있고, 마지막 마디에서 처음의 여린내기 부분만큼이 짧아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첫 마디와 맨 끝마디를 합하여 완전한 마디를 이룬다.



또한 여린내기의 곡에서는 첫 음표 앞에 쉼표를 두지 않으며, 이 마디는 첫째 마디로 세지 않는데 이를 **못갓춘마디**라 한다. 따라서 맨 끝 마디도 여린내기 분이 짧아지므로 역시 못갓춘마디이나, 마디 수는 센다. 이 밖의 마디는 모두 정해진 박자를 갖추고 있으므로 **갓춘마디**라고 부른다.

5. 박자의 종류

박자에는 2 의 배수 관계로 된 2 박자계, 3 의 배수 관계로 된 3 박자계, 그리고 2 박자계와 3 박자계가 섞인 혼합박자가 있다. 2 박자계와 3 박자계는 이를 다시 홀박자와 겹박자로 나눈다.

홀박자는 겹박자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2 박자, 3 박자, 4 박자가 이에 속한다. 겹박자는 몇 개의 홀박자가 결합된 것으로서, 6 박자, 9 박자, 12 박자가 이에 속한다.

이 외에 5 박, 7 박과 같이 홀수 박자와 짝수 박자가 섞인 혼합박자가 있다. 혼합박자는 짝수 박자가 앞에 놓이느냐, 홀수 박자가 앞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셈여림의 관계가 달라진다.

6. 불규칙한 셈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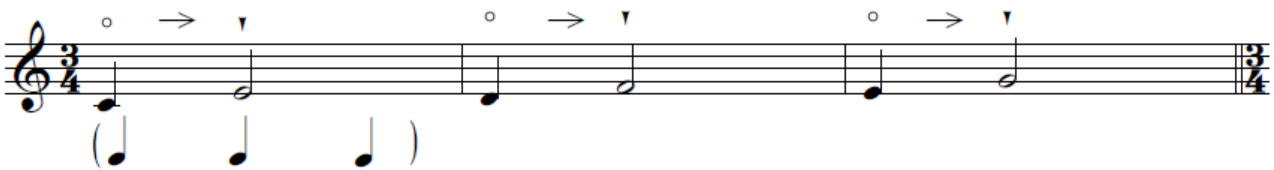
① 당김음

센박과 어린박에 의해 올바른 진행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 셈 · 여림의 위치가 변화된 상태를 **당김음**이라고 한다. 당김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가 있다.

가) 같은 높이의 센박과 어린박이 붙임줄로 연결될 때 센박의 위치가 바뀐다.



나) 어린박이 센박보다 길어졌을 때, 이것이 센박이 된다.



② 쉼표에 의한 변화

센박에 쉼표가 있으면 다음에 오는 음표가 센박이 된다.



③ 부호에 의한 변화

가) 멜로디나 리듬 등의 관계에 따라 때로는 센박과 어린박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럴 때는 *sf* , > 등의 부호를 붙인다.



나) 악곡의 박자와 다른 박자감을 주기 위해서 주법에 관계되는 표를 쓸 때에, 어린박이 센박으로 된다.



4 회차	주법에 관한 표, 꾸밈음, 줄임표
------	--------------------

학습목표

- 주법에 관한 표를 이해할 수 있다.
- 꾸밈음을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다.
- 도돌이표 종류와 연주순서를 알 수 있다.
- 빠르기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 셈여림표를 알 수 있다.
- 나타냄말의 종류와 의미를 알 수 있다

강의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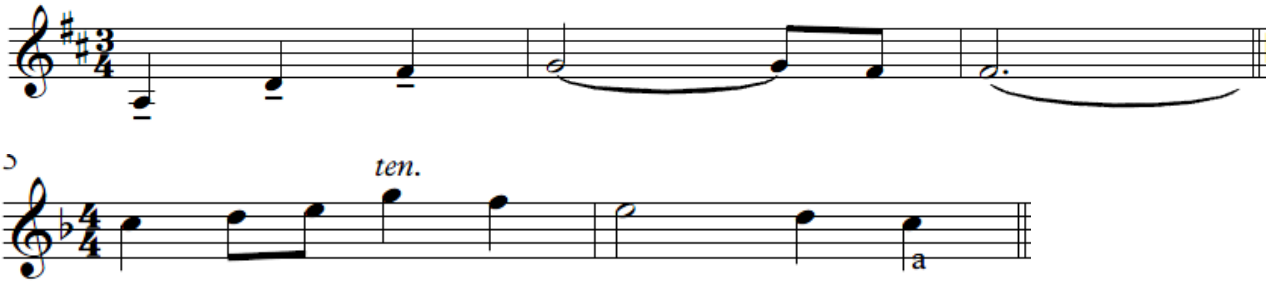
- 주법에 관한 표
- 음표의 꾸밈
- 줄임표(도돌이표, D.C, D.S, bis, ter, quarter)
- 빠르기표
- 셈여림표
- 나타냄표

1. 주법에 관한 표

① 레가토(Lega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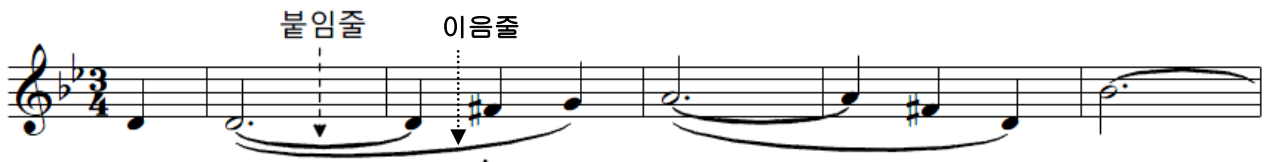
부드럽게 소리내라는 뜻인데, legato 라고 쓰거나 활줄로 표시한다.

줄로 표시할 때는 이음줄과 같은 뜻이 된다.



② 붙임줄(Tie)와 이음줄(Slur)

높이가 같은 두 음을 활줄로 연결하여 끊지 않고 소리내도록 하는 것을 **붙임줄**이라 하고,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을 활줄로 연결하여 부드럽게 소리내도록 하는 것을 **이음줄**이라 한다. 이 이음줄은 한 악구를 표시하며, 현악기에서는 이음줄의 첫 음부터 마지막 음까지 활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③ 악센트(Accent)

곡의 연주 도중 특정한 음을 특히 세게 낼 필요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은 부호를 붙인다.

‘그 음만 특히 세게’의 뜻

sf, sfz(sforzando의 약자)

fz(forzando의 약자)

rf, rfz(rinforzando의 약자)

^ 또는 > (accent라고 함)

④ 숨표(Breath)

노래에 있어서 동기나 악절(Phrase)이 끊길 때 등, 숨을 쉬어야 할 때는 숨쉴 자리에 숨표를 붙인다.



⑤ 스타카토(Staccato)

레카토와는 정반대로 짧게 끊어서 연주하라는 뜻으로 음표의 위나 아래에 점 「·」을 붙여 표시한다.

스타카토의 변화로서 「▼」 표를 붙인 것은 **스타카티시모(Staccatissimo)**, 「·」 표가 붙은 음들을 이음줄로 묶은 것을 **메조스타카토(Mezzo staccato)**라고 한다.

스타카토는 편의상 일단 1/2음으로 소리내고, 스타카티시모는 스타카토보다 더욱 짧게 1/4음 소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조스타카토는 스타카토도 아니고 레가토도 아닌, 말하자면 3/4음 쯤으로 소리내면서 끊어질 듯 이어질 듯하게 연주하라는 표시이다. 그러나 이 길이는 악곡의 악곡의 빠르기나 성격에 따라 변하며 일정한 것은 아니다.

① 스타카토 (staccato) : 표시된 음을 1/2 정도로 짧게 끊어서 연주하라는 뜻.



② 스타카티시모 (staccatissimo) : 표시된 음을 1/4 정도로 짧게 끊어서 연주하라는 뜻.



③ 메조 스타카토 (mezzo staccato) 또는 슬러 스타카토(slur staccato) : 표시된 음을 3/4 정도의 길이만 소리나도록 끊어서 연주하라는 뜻.



⑥ 테누토 (Tenuto)

그 음표가 갖는 길이는 충분히 지켜서 폭넓게 연주하라는 뜻으로 「ten.」 또는 「-」로 표시한다.





⑦ 늘임표 (Fermata)

어떤 음표나 쉼표에 \frown , \smile 표를 붙여, 그 쉼표나 음표의 길이를 적당히 늘인다는 뜻이다. 늘이는 길이는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곡의 빠르기에 따라 2 배 내지 3 배로 늘인다. 또한 이 표가 겹세로줄 위에 붙으면 Fine 와 같은 마침표의 뜻이 된다.



2. 음표의 꾸밈

꾸밈음은 어떤 음을 꾸미기 위해서, 그 음의 앞이나 뒤에 놓여지는 작은 음표를 말하고, 꾸밈표는 어떤 음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를 말한다. 이 꾸밈음과 꾸밈표는 그 종류가 매우 많고 기보법, 주법, 해석이 시내나 작곡가, 연주자, 출판사 등에 따라 달라서 그 합리적인 분류가 어렵지만 비교적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것을 골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① 꾸밈음

가) 앞꾸밈음

㉠ 긴 앞꾸밈음

기법

주법

㉡ 짧은 앞 꾸밈음

기보법

연주법

㉢ 겹앞꾸밈음

기보법

연주법

나) 뒤 꾸밈음

기보법

연주법

다) 떤꾸밈음

기법

3. 줄임표

① 도돌이표

도돌이표는 몇 마디를 그대로 반복하여 두 번 연주하는 것을 나타낸다.

∴ 표가 있는 곳에서 ∴ 표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반복 연주하라는 기호로 ∴ 표가 없으면 곡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 반복하라는 뜻이다.

연주 순서

①

... A B C D C D

... A B A B C D

... A B A B C D C D

② 반복 부분의 마지막이 다를 때

... A B C D A B C E



② 다카포(D.C. Da capo)와 달세뇨(D.S. Dal seg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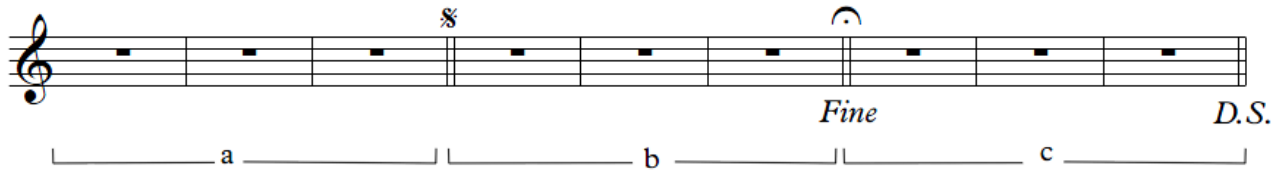
다카포는 「처음부터」의 뜻으로서, 악절이 끝나는 부분에 D.C.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하고, 마침표(Fine 또는 ♯)가 있는 곳에서 끝맺는다.



F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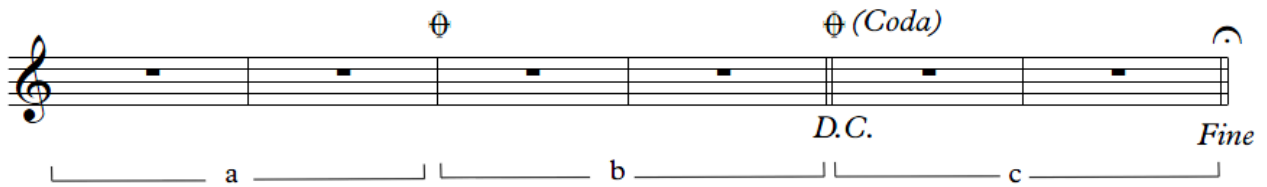
D.C.

a b

달세뇨는 「표가 있는 데서부터 되돌아 감」의 의미로서, D.S.가 있으면 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 Fine 또는 의 표까지 연주하며 끝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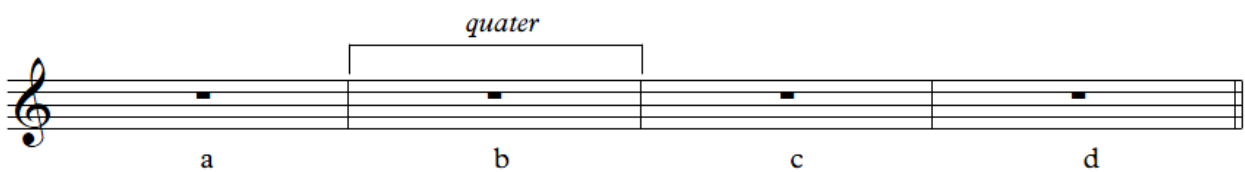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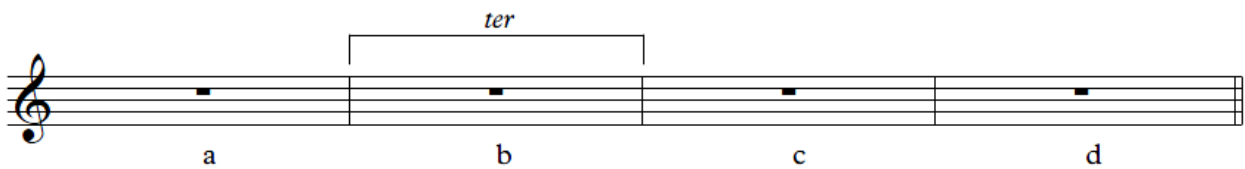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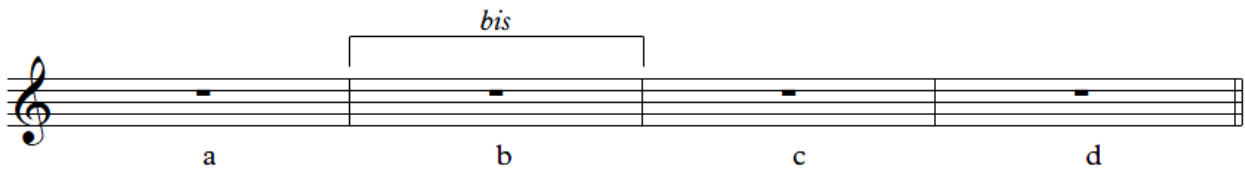


다카포, 달세뇨에 의해 반복되는 부분에  표(coda 표)가 붙을 때는, 거기부터 다음의  또는, Coda 라고 적힌 부분까지를 건너 뛰고 진행하라는 뜻이다.



③ 같은 내용의 마디 반복

어떤 마디를 반복할 때 쓰는 표가 있다. 「bis」는 두 번, 「ter」는 세 번, 「quater」는 네 번 반복하는 것이다.



bis 와 도돌이표의 차이점은, 다시 반복하는 기호가 있어서 되풀이 할 때 bis 는 반복하고, 도돌이표는 반복하지 않는다.

4. 빠르기표

① 악곡 전체의 빠르기를 지시하는 것

Largo 느리고 폭넓게

Adagio 느리고 침착하게

Lento 느리고 무겁게

Andante 느린 걸음 걸이의 빠르기로

Andantino Andante 보다 조금 빠르게

Moderato 보통의 빠르기로

Allegretto Allegro 보다 조금 느리게

Allegro 빠르고 즐겁게

Presto 빠르고 성급하게

Vivace 빠르고 경쾌하게

② 다른 말에 덧붙여서 쓰이는 것

Alla ~풍으로

Assai 매우

con ~를 가지고

con brio 생기있게

con fuoco 격렬하게

meno ~보다 적게

molto 매우

non troppo 과하지 않게

piu 더욱

poco 약간

poco a poco 조금씩

③ 점차로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것

accelerando 점점 빠르기

meno mosso 빠르기를 조금 늦추어서

morendo 점점 느리게, 꺼지듯이

perdendosi 점점 느리게, 사라지듯이

piu mosso 좀더 빠르게, 활발하게

ritardando 점점 느리게

smorzando 꺼져가듯 느리게

④ 연주자 임의로 정하는 것

tempo rubato 악곡의 성격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임의로 느리거나 빠르게 한다. 그러나, 전체의 연주 시간은 같아야 한다.

a piacere 자유로이, 좋을대로

⑤ 본래의 빠르기로 돌아가게 하는 것

a tempo 본래의 빠르기로

tempo primo 처음의 빠르기로

5. 셈여림표

① 전반적인 셈여림표

[여림표]

p 피아노 여리게

pp 피아니시모 조금 여리게

ppp 피아니시시모 pp 보다 여리게

[셈표]

f 포르테 세게

ff 포르티시모 f 보다 세게

fff 포르티시시모 ff 보다 세게

[중간 셈 여림표]

mf 메조포르테

mp 메조피아노

이상을 셈여림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fff - ff- f- mf- mp - p- pp-ppp

② 부분적인 셈여림표

Sf, sfz 특히세게

Fp 세게, 바로 여리게

Pf 여리게, 바로 세게

Subito piano 갑자기 여리게

Subito forte 갑자기 세게

③ 점차적인 셈여림표

Crescendo(cresc.) 점점 세게

Decrescendo(decresc.) 점점 여리게

Diminuendo (dim.) 점점 여리게

Poco a poco cresc. 조금씩 점점 세게

Poco a poco dim. 조금씩 점점 여리게

6. 나타냄말

악곡의 성격이나 표정, 표현을 나타내는 말로서, 악곡 전체 또는 악절의 표정을 개념적으로 지시한다. 오늘날 흔히 쓰는 용어는 빠르기 말이나 셈여림의 표시와 같이 이탈리아어이며 작곡가에 따라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표기하고 있다.

Agitato 격하게, 흥분해서
 Amabile 사랑스럽게
 Amorooso 아름답게
 Animato 생기있게
 Appassionato 열정적으로
 Arioso 아리아처럼, 노래하듯이
 Brillante 화려하게
 Con brio 생기있고 활기있게
 Cantabile 노래하듯이
 Capriccioso 마음내키는대로
 Comodo 평온하게
 Dolce 부드럽게
 Elegante 우아하게
 Elegiaco 슬프게
 Con espressivo 표정을 넣어서, 정서적으로
 Grandioso 웅대하게
 Grave 무겁게, 엄숙하게
 Grazioso 우아하게
 Leggiero 경쾌하게
 Maestoso 위엄있게, 장엄하게
 Misterioso 신비스럽게
 Pastorale 목가적으로
 Scherzando 유모러스하고 경쾌하게
 Sostenuto 음을 눌러서, 무겁게

5 회차	음정
------	----

학습목표

- 온음과 반음을 구별하여 음정의 구분할 수 있다.
- 완전음정과 장음정의 변화되는 음정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

강의요약

- 음정의 종류
- 음정의 성질
- 기본음정
- 음정의 변화

1. 음정의 종류

① 온음(Whole tone)과 반음(Semi tone)

온음간격으로 된 2도 음정을 **온음**이라 하고, 반음 간격으로 된 2도 음정을 **반음**이라고 한다.

8도 음정 사이에 두 개의 반음과 다섯 개의 온음이 포함된 것을 온음계라 하고, 임시표를 써서 반음 간격으로 나열한 것을 반음계라고 한다.

② 음정의 성질

음정은 일반적으로 그 음정을 구성하는 온음과 반음의 수에 따라, 완전음정, 장음정, 단음정, 증음정, 감음정의 5가지로 나뉜다.

③ 기본음정

음정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 음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아래 음이 다(C)음일 때를 기본위치라 하고, 이 음을 기준으로 하여, 원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음정을 기본음정이라고 한다. 이 기본음정에는 각각 네 개씩의 완전음정(1,4,5,8도)과 장음정(2,3,6,7도)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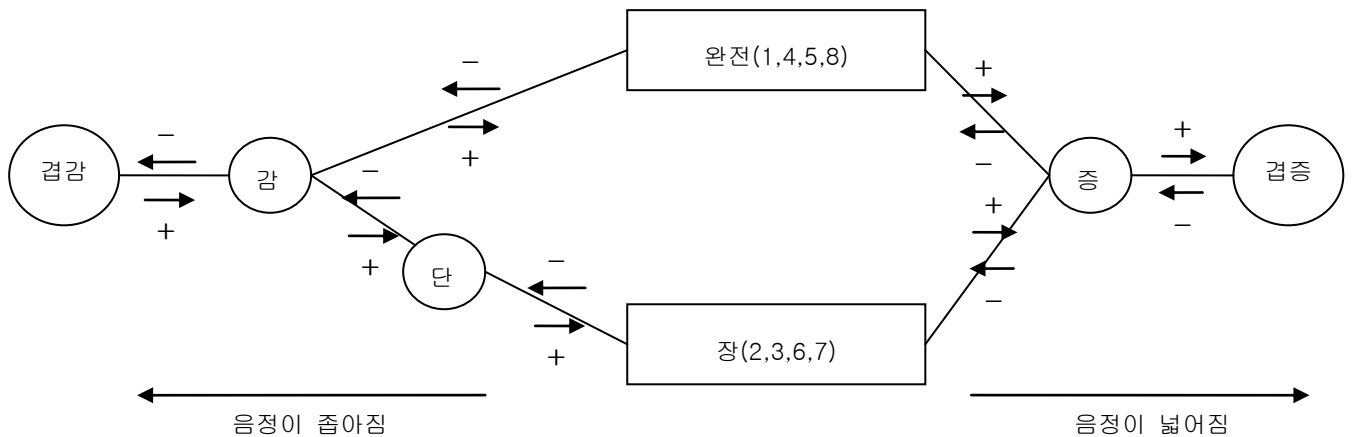
완전음정	1, 4, 5, 8도
장음정	2, 3, 6, 7도

음정의 간격은 반음으로 계산하므로 위의 각 음정 안에 들어있는 온음과 반음의 수를 우선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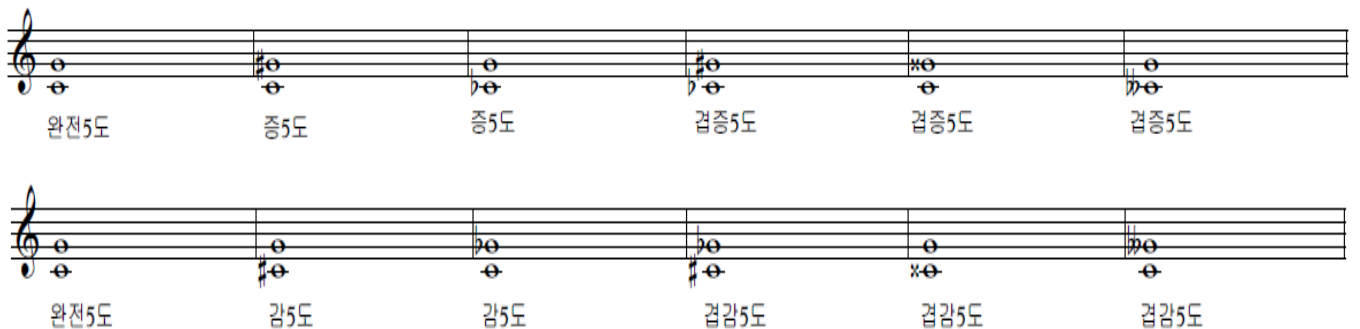
구분	온음	반음	구분	온음	반음
완전 1도	0	0	완전 5도	3	1
장 2도	1	0	장 6도	4	1
장 3도	2	0	장 7도	5	1
완전 4도	2	1	완전 8도	5	2

④ 음정의 변화(반음계적 음정)

완전음정과 장음정에 변화표나 그 밖의 조건으로 인해 두 음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게 되며 그에 따라서 몇 가지의 변화가 생긴다. 간격을 살필 때는 항상 온음과 반음의 수로 따져야 한다. 변화되는 음정 상호간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쪽의 음에 #이 붙거나 아래쪽의 음에 b이 붙으면 두 음의 간격이 넓어지고, 반대로 위쪽에 b이 붙거나 아래쪽에 #이 붙으면 두 음의 간격은 좁아지게 된다. 아래에 완전 5도와 장 6도가 변화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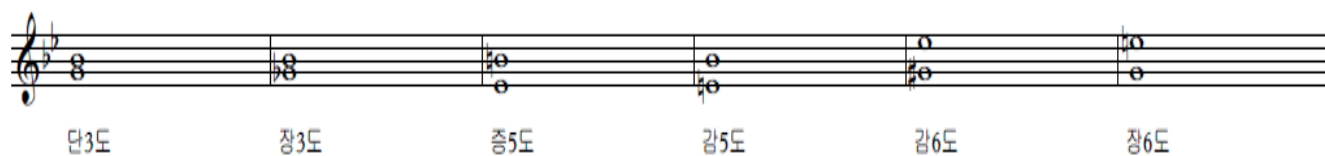


위에 든 예는 모두 아래 음이 다인 기본위치이다. 아래 음이 다음이 아닐 때는 변화표가 붙지 않더라도 음정이 변할 때가 있다. 즉 바(F)와 나(B) 사이는 반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 4 도가 되고 이 두 음은 세 개의 온음만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3 온음 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나(B)와 바(F) 사이는 두 개의 반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감 5 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위치가 아닐 때는 항상 그 도수에 해당하는 기본음정의 반음 수와 비교하여 알아내야 한다.



변화표가 임시표로서 따로 붙지 않더라도 조표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조표에 해당하는 음의 ♯, X, ♭ 등은 특히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6 회차	음계
------	----

학습목표

- 음계의 구조와 계이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 조의 구성과 조표가 붙은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

강의요약

- 음계의 의미
- 음계의 구조와 계이름
- 음계의 종류
- 조와 조표

1. 음계의 의의

어떤 음을 기점으로 하여 1 옥타브 위의 같은 이름의 음에 도달할 때까지,
특정된 질서에 의해서 배열된 음렬을 **음계**라고 한다.


따라서 음계는 8 도 이내의 음정 관계로 정해지고, 다른 옥타브에서는 같은 것이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반음과 온음이 섞여 있는 음계를 **온음계**라 하고,
반음만으로 된 음계를 **반음계**라 한다.

음계는 각기 민족이나 시대에 따라 음의 수나 구조가 모두 다르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것은 7 음음계이다.

이 7 음 사이의 음정 구조에 따라 장음계와 단음계로 나뉘어진다.

2. 음계의 구조와 계이름

음계의 각 음은 아래와 같은 이름이 있고, 어느 것이나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	위	가	버	한	이	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장음계	Do	Re	Mi	Fa	Sol	Ra	Si
단음계	La	Si	Do	Re	Mi	Fa	Sol

- 으뜸음(Tonic) - 음계의 시작음이고 음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음이다.
- 딸림음(Dominant) - 으뜸음의 완전 5도 위의 위치하면 으뜸음을 보좌한다. 말하자면 딸림음의 역할에 따라 으뜸음은 그 성격을 규정한다.
- 버금딸림음(Subdominant) - 으뜸음의 완전 5도 아래에 위치한다. 즉 으뜸음을 중심으로 딸림음과 대칭관계에 있고, 으뜸음과 딸림음의 기능을 돕는다.
- 이끈음(Leading tone) - 으뜸음의 반음 아래에 위치하여 항상 으뜸음에 끌려 들어가는 성질이 있다. 이끈음으로 인해서 으뜸음의 역할이 뚜렷해진다.
- 그리고 으뜸음과 딸림음 사이의 제 3도 음을 가온음(Mediant), 으뜸음과 버금딸림음 사이의 제 6도 음을 버금가온음(Submediant), 으뜸음 바로 위에 있는 제 2도 음을 위으뜸음(Supertonic) 이라고 한다.

3. 음계의 종류

① 장음계 (Major scale)

다음에서 시작하여 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셋째 음과 넷째 음 사이가 반음이고, 일곱째 음과 여덟째 음 사이가 반음이다. 음계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② 단음계 (Minor scale)



먼저 장음계와 비교하기 위해서 장음계와 같은 으뜸음에서 시작한 단음계를 나타내 본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음계와는 달리 단음계는 둘째 음과 셋째 음이 반음이고, 다섯째 음과 여섯째 음이 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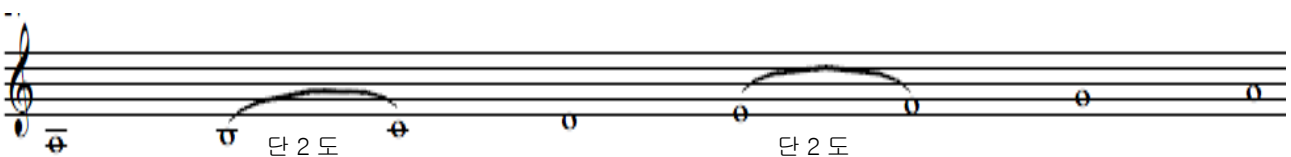
위의 예로 든 단음계는 사이음이 사용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단음계라 할 수 없다.

이에 원음만으로 단음계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장음계와는 음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으뜸음의 자리가 달라지는데,

장음계의 으뜸음보다 단 3도 아래의 음이 단음계의 으뜸음이 된다.

즉 다음에서 시작한 장음계와 가음에서 시작한 단음계가 기본적인 음계인 것이다.



단음계 역시 음계의 각 음을 위와 같은 음정 구조로 배열함에 따라 모든 원음과 사이음을 으뜸음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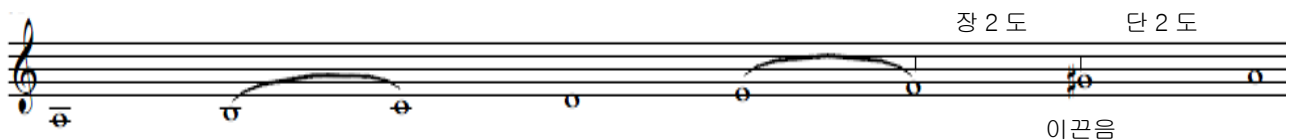
단음계는 음정 구조의 차이에 따라 아래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가) 자연단음계 (Natural Minor Scale)

단음계의 기본형으로서, 2~3, 5~6 사이가 반음인 음계이다. 자연단음계는 일곱째 음과 여덟째 음이 온음 간격이기 때문에 일곱째 음이 이끈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므로 이끈음의 필요성이 생길때는 일곱째 음에 임시표를 붙여 반음 높임으로써 이끈음을 만들어 주게 된다. 이 때문에 기본형 외에 화성단음계와 가락단음계가 나오게 된다.

나) 화성단음계 (Harmonic Minor Scale)

자연단음계의 일곱째 음을 반음 올려 이끈음을 만들어 줌으로써, 으뜸음으로 나아갈 때 충분한 종지감이 들도록 한 것이 화성단음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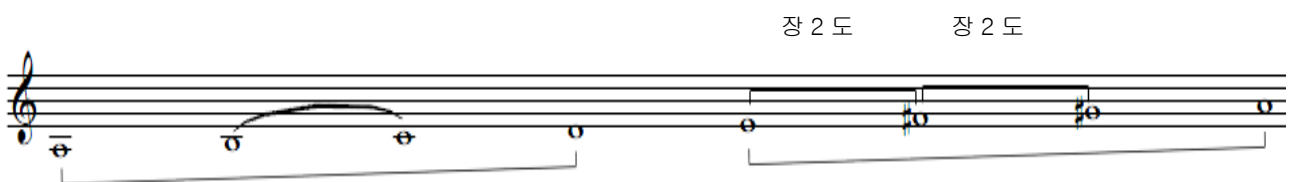


앞의 예에서와 같이 일곱째 음과 여덟째 음 사이는 단 2도가 되고, 여섯째 음과 일곱째 음 사이는 증 2도가 된다. 그 밖의 음의 간격은 자연단음계와 같다.

다) 가락단음계 (Melodic Minor Scale)

앞의 화성단음계에서 일곱째 음을 반음 올린 결과 여섯째 음과의 사이가 증 2도 되었는데, 이 증 2도는 안어울림음정일 뿐 아니라 음계의 다른 음들 사이에는 없었던 간격이다. 그 때문에 음계의 각 음들을 차례로 읽어 올라가면 여섯째와 일곱째의 두 음만이 유독 동떨어지게 느껴진다.

이러한 원인이 되는 증 2도를 없애고 각 음 사이의 간격을 장 2도와 단 2도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여섯째 음도 임시표로써 반음 올려준 것이 가락단음계이다.



4. 조(Key)와 조표(Key Signature)

① 조와 조성

어떤 음을 으뜸음으로 정하여, 어떤 음계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악곡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으뜸음과 음계의 관계를 조, 그 성질을 조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다(C)를 으뜸음으로 하는 장음계의 조성은 다(C)장조 이다. 즉 장음계의 조는 장조, 단음계의 조는 단조라고 부른다.

② 장음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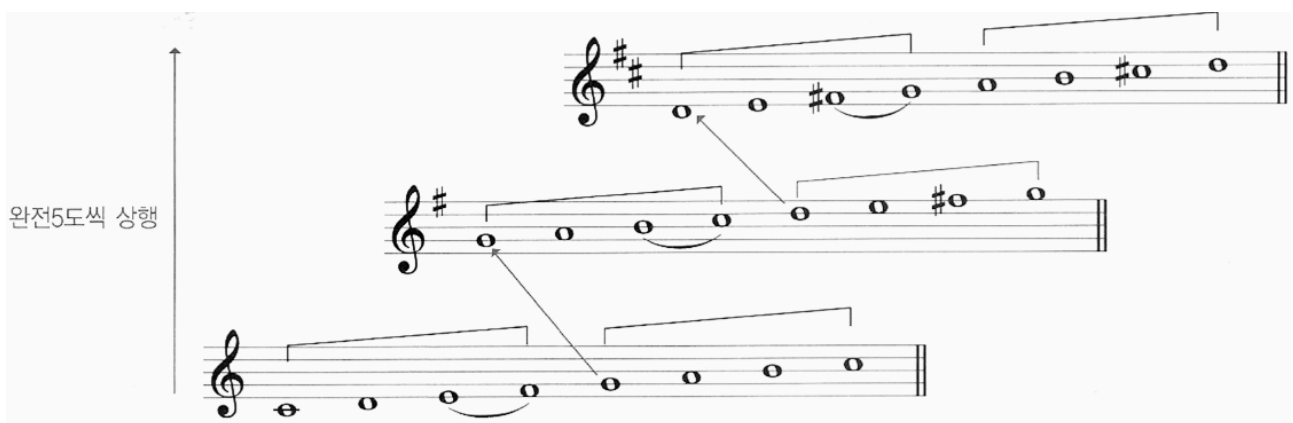
원음만을 가지고 구성한 장음계는 으뜸음이 다(C)음이다. 이를 기본 전제로 하여 올림표를 붙여가면서 구성하는 것과 내림표를 붙여가면서 구성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올림표 계통

으뜸음이 완전 5 도씩 위로 올라가면서 구성한다. 즉 으뜸음의 완전 5 도 위의 딸림음을 으뜸음으로 바꾸면서, 이 음에서 다시 음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먼저, 다(C)음의 5 도 위인 사(G) 음에서 시작하여 장음계를 구성한다. 이 때, 이 음계의 음정 구조도 장음계의 기본형과 똑같아야 하므로, 한 개의 사이음(올림 바 -F#)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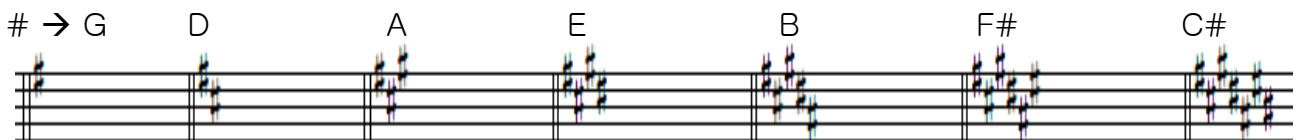
똑같은 방법으로 사(G)가 으뜸음일 때의 딸림음인 라(D)에서 시작하여 또 음계를 구성할 수 있다. 역시 이 음계에서도 사이음(올림 다 - C#) 하나를 더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음계를 구성하면 모두 기본형을 제외한 7개의 장음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 으뜸음을 적으면 아래와 같다.



5도씩 올라갈수록 사이음이 하나씩 더 생기고, 조표는 결국 음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이음의 임시표를 개괄해서, 음자리표 바로 다음의 해당하는 음자리에 적은 것이다.



나) 내림표 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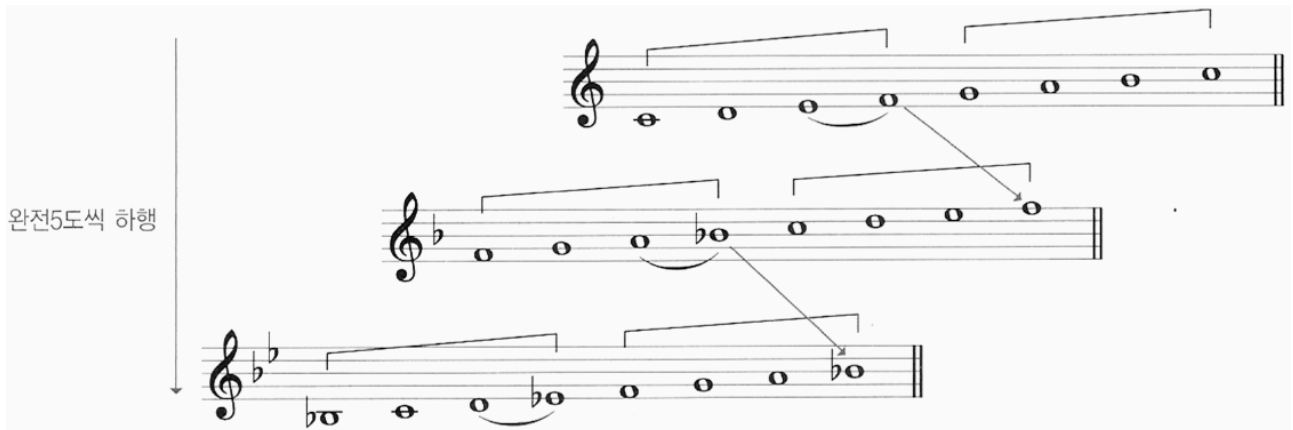
으뜸음이 완전 5도씩 아래로 내려가면서(즉, 완전 4도씩 위로 올라가면서) 구성한다.

으뜸음의 완전 5도 아래인 버금딸림음을 으뜸음으로 바꾸면서 이 음에서부터 장음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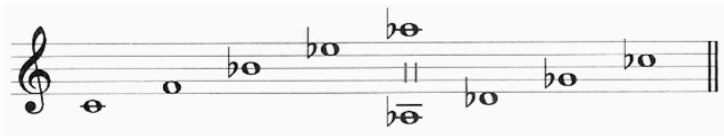
다(C)음의 5도 아래(4도 위)인 바(F)음에서 시작하여 장음계를 구성하면, 올림표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음(내림 나-B \flat)이 하나 생긴다.

같은 방법으로 바(F)음이 으뜸음일 때 버금딸림음인 내림 나(B \flat)에서 시작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때도 사이음(내림 마-E \flat)이 하나 더 생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음계를 구성하면 기본형을 제외한 7 개의 장음계가 생긴다. 그 으뜸음을 적으면 아래와 같다.



5 도씩 내려갈수록 사이음이 하나씩 더 생기고 일곱 번 째 음계는 사이음만으로 구성하게 된다. (내림 다장조, 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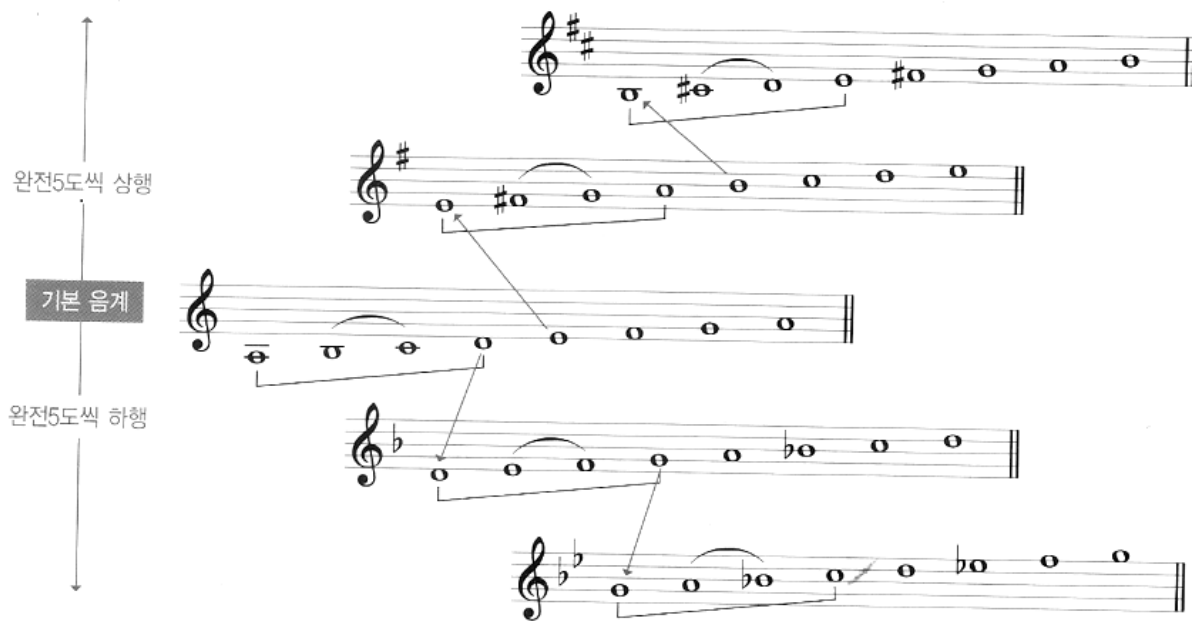
③ 단음계의 구성

장음계와 마찬가지로 원음만 가지고 구성된 가(A)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한다.

구성 방법은 장음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으뜸음이 어디로 옮겨져도 음정 구조가 기본 음계와

똑같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올림표 계통으로 완전 5 도씩 올라감에 따라 장음계 때와 똑같은 사이음이

하나씩 생기게 되고, 완전 5 도씩 내려가면서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성된 각 종 단음계의 으뜸음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④ 각 조의 음계와 조표

장조나 단조나 그 음계가 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C)장조와 가(a)단조 뿐이다.

그 밖의 조는 모두 음계 안에 사이음이 끼어 있다.

이러한 조를 나타낼 때 사이음을 그 때 그때마다 임시표로 나타내면 너무 복잡하므로 조표를 사용한다.

즉, 조표는 모든 조의 음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음을 일괄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며,

조표에 의해서 규정되는 장 · 단조의 음계 각 음을 그 조의 음계 고유 음으로 정하는 것이다.

조표는 다섯 줄의 맨 왼편, 음자리표 바로 다음에 해당되는 음자리에 그려진다.

조표가 붙여진 자리의 원음과 같은 이름의 음은 옥타브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사이음이 된다.

아래에 각 조의 조표와 그 으뜸음을 보인다.

장조

단조

장조

단조

위의 예에서 장조의 B와 C \flat , F \sharp 과 G \flat , C \sharp 과 D \flat 단조의 g \sharp 과 a \flat , d \sharp 과 e \flat , a \sharp 과 b \flat

이들은 각기 짝이름한소리의 조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표가 하나씩 붙을수록 올림표는 5도씩 올라가고, 으뜸음도 마찬가지로 5도씩 올라간다. 반대로 내림표는 5도씩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장조와 이보다 단 3도 아래의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조의 조표가 똑같다. 그러므로 이들의 음계 고유 음도 똑같다.

7 회차	화성
------	----

학습목표

- 3 화음과 7 화음의 구성을 이해 할 수 있다.
- 화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것의 재즈코드네임을 알 수 있다.

강의요약

- 3 화음
- 7 화음
- 재즈 코드네임

1. 3 화음

화음은 기본적으로는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3 화음(triad)이라고 한다.

3 화음은 으뜸음과 으뜸음의 3 도와 5 도 음이 겹쳐 만들어지는 것이다.

으뜸음을 밑음, 3 도 음을 제 3 음, 5 도 음을 제 5 음이라고 한다.

3 화음은 3 도 음과 5 도 음의 음정에 따라 장 3 화음, 단 3 화음, 증 3 화음으로 구별된다.

- 장 3 도 + 완전 5 도 = 장 3 화음
- 장 3 도 + 증 5 도 = 증 3 화음
- 단 3 도 + 완전 5 도 = 단 3 화음
- 단 3 도 + 감 5 도 = 감 3 화음

C-E-G#, C-E-G, C-E \flat -G, C-E \flat -G \flat 은

각각 증 3 화음, 장 3 화음, 단 3 화음, 감 3 화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을 순서대로 연주해 보면 밝고 투명한 느낌에서 어둡고 닫힌 느낌으로 변화함을 알 수 가 있을 것이다.

C와 Cm의 차이는 제 3 음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제 3 음을 성격음이라 한다.

C 장조 음계에서 I 음에서 VII 음까지 순서대로 밑음으로 사용해서 3 화음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C: I ii iii IV V vi vii°

장 단 단 장 장 단 감

I, IV, V 도의 화음은 장 3 도의 제 3 음과 완전 5 도의 제 5 음으로 이루어진

장화음으로 첫음의 이름을 따라 각각 C(으뜸화음), F(버금딸림화음), G(딸림화음)라고 한다.

이를 주요 3 화음이라 하며, 나머지를 부 3 화음이라 한다.

주요 3 화음을 재즈 음악에서는 흔히 three chord 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요 3 화음은 각각 특별한 화성적 기능을 가진다.

으뜸화음은 조의 으뜸음을 밑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안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 3 화음 중 VI 화음은 I 의 대리하여 으뜸화음의 기능을 지닌다.

딸림화음에는 딸림음뿐만 아니라 이끈음도 포함되어 있어서 으뜸화음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으뜸화음으로 진행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버금딸림화음은 으뜸화음과 딸림화음의 관계를 보충하여 으뜸화음이 딸림화음으로 진행하는 사이에 삽입되어 딸림화음을 유도하는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

화음의 진행에 다채로운 변화를 주며 화성을 폭넓게 하는 성격을 가진다.

II 도 화음은 IV의 대리기능, 즉 딸림화음의 기능을 한다.

II, III, VI 도의 3 화음은 밑음과 3 음의 음정이 단 3 도를 이루는 단화음이며

C 장조에서 이들 화음의 이름은 각각 Dm, Em, Am 으로 주어진다.

VII 도 화음은 단 3 도의 겹침으로 이루어진 감화음이다.

감화음은 장화음과 단화음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단조 음계의 음을 이용하여 화음을 만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성단음계를 이용하여

화음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vii 음을 이끈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vii 음을 반음 올려주어야 한다. 즉 a 단조에서 vii 음은 G#이 되어야 한다.

a: i	ii°	III+	iv	V	VI	vii°
단	감	증	단	장	장	감

음계의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화음은 다음과 같다.

a 단조의 III 도의 증 3 화음의 구성 음 C, E, G#은 모두 장 3 도를 이루고 있다.

G#과 C 는 감 4 도로서 온음 두 개의 음정이므로 장 3 도의 음정 간격과 동일하다.

C-E-G#-C 에 있는 4 개의 음은 모두 장 3 도를 이루며 한 옥타브를 이루므로

구성 음 중 어떤 것을 밑음으로 사용해도 음정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는 증 3 화음 구성음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계는 구성음이 $D\flat - F - A$, $D - F\# - A\#$, $E\flat - G - B$ 로 이루어질 때도 동일하다.

증 3 화음의 형태는 이러한 네가지 형태로만 주어진다.

2. 7 화음

가장 간단한 4 성 화음이 7 화음이다. 3 화음에 또 다시 3 도를 붙여 만든 것이다.

제 7 음은 밑음과 7 도를 이루는데 밑음과 제 7 음의 음정에 따라 장 7, 단 7, 감 7 화음 등으로 구별된다.

C 장조의 7 화음 중 밑음이 C와 F 일 때 각각의 vii 음 B와 E 사이에서 장 7 도를 이루고

나머지는 모두 단 7 도를 이룬다.

다음은 C 장조 장음계와 a 단조 단음계의 음으로 만들어지는 7 화음을 보인 것으로

각각의 화음은 음의 번호를 이용해서 I_7 , II_7 ... 등으로 표기하고

I 도의 7 화음, II 도의 7 화음, ... 등으로 부른다. 7 화음은 불협화의 정도가 심하므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독특하고 예리한 울림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자주 사용된다.

딸림 7화음 버금 7화음

C: V_7 I_7 ii_7 iii_7 IV_7 vi_7 vii°_7

딸림 7화음 버금 7화음

a: V_7 i_7 ii°_7 III^+_7 iv_7 VI_7 vii°_7

7 화음의 3 음, 5 음, 7 음의 음정으로 7 화음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I ₇	II ₇	III ₇	IV ₇	V ₇	VI ₇	VII ₇
장조	3, 5, M7	b3, 5, 7	b3, 5, 7	3, 5, M7	3, 5, 7	b3, 5, 7	b3, b5, 7
단조	b3, 5, M7	b3, b5, 7	3, #5, M7	b3, 5, 7	3, 5, 7	3, 5, M7	b3, b5, b7

장조의 7 화음은 네 종류로 분류되지만 단조는 모두 특성이 다르다.

3 화음에 장 7 도가 부가된 화음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3,5,M7)은 장 3 화음에 장 7 도가 부가된 메이저 세븐스(major 7th), (b3, 5, M7)은 단 3 화음에 장 7 도가 부가된 마이너 메이저 세븐스(minor major 7th), (3,#5, M7)은 증 3 화음에 장 7 도가 부가된 augmented major 7th 이다.

장 3 화음, 단 3 화음, 증 3 화음에 장 7 도의 음이 부가된 7 화음을 보통 장 7 화음(major 7th chord)이라 하며 주로 장 3 화음에 장 7 도 음이 부가된 것을 말한다.

3 화음에 단 7 도가 부가된 화음에도 세가지 종류가 있다.

(b3, 5, 7)은 단 3 화음에 단 7 도가 부가된 마이너 세븐스(minor 7th), (3,5,7)은 장 3 화음에 단 7 도가 부가된 세븐스(7th), (b3, b5, 7)은 감 3 화음에 단 7 도가 부가된 감 7 화음(diminished 7th)이다.

장 3 화음에 단 7 도가 부가된 세븐스 코드는 V 도의 7 화음 V₇로서 장조와 단조에서 음정의 특성이 같으며, 이를 딸림 7 화음 또는 도미넌트 세븐스(dominant 7th)라고 한다.

도미넌트 세븐스의 음 구성은 같은 으뜸음조 관계의 장조와 단조에서 동일하다.

예를 들어 C 장조와 c 단조에서 V₇의 음 구성은 모두 G-B-D-F 로 동일하다.

3. 재즈코드네임

재즈에서 사용되는 화음 이름을 재즈 코드 네임, 또는 단순히 코드 네임(chord name)이라 한다.

코드 네임은 장 3 화음을 기준으로 하여 C-E-G 를 C 로 나타내는 것처럼

밑음의 음이름으로 나타는 코드심벌(Chord symbol)과 함께 화음의 성질이나 부가음 등을

뜻하는 약어나 숫자를 덧붙여 나타낸다.

(1) 3 화음의 코드 네임

예를 들어 C-E-G, C-E-G#, C-E \flat -G, C-E \flat -G \flat 은

각각 장 3 화음, 증 3 화음, 단 3 화음, 감 3 화음이며

장 3 화음은 밑음만을 사용하여 C로 표현하거나 major의 두분을 대문자로 사용하여 CM으로 표현한다.

증 3 화음은 'aug'는 augmented triad의 준말을 이용하여 Caug 또는 C+로,

단 3 화음은 minor의 준말을 이용하여 Cm 또는 C-로,

감 3 화음은 diminished triad의 준말을 이용하여 Cdim 또는 C $^{\circ}$ 로 나타낸다.

- major triad(3,5) : C 또는 CM
- minor triad(\flat 3, 5) : Cm 또는 C-
- augmented triad(3, #5) : Caug 또는 C+
- diminished triad(\flat 3, \flat 5) : Cdim 또는 C $^{\circ}$

(2) 7 화음의 코드 네임

가. Major 7th chord

3 화음의 코드 네임에 장 7 도를 뜻하는 M7을 덧붙여 표기하거나 Δ 기호를 붙여 나타낸다.

- major 7th(3,5,M7) : C-E-G-B, CM7(C major 7th), 3 Δ 7
- minor major 7th(\flat 3,5,M7) : C-E \flat -G-B, CmM7, Cm Δ 7, C-(maj7)
- augmented major 7th(3,#5, M7) : C-E-G#-B, CaugM7, C+M7, C+maj7, C+ Δ 7

나. Minor 7th chord

장 3 화음, 단 3 화음, 감 3 화음 등 3 화음에 단 7 도의 음이 부가된 7 화음을 단 7 화음(minor 7th chord)이라고 한다. 마이너 세븐스를 협의로 말할 때는 단 3 화음에 단 7 도가 부가된 화음을 말한다.

- 7th(dominant 7th : 3-5-7) : G-B-D-F, G7
- minor 7th(\flat 3, 5, 7) : G-B \flat -D-F, Gm7(G minor 7), G-7
- half diminished(\flat 3, \flat 5, 7) : B-D-F-A, Bm7(\flat 5), Bm7 $^{-5}$, B, B \emptyset

- diminished($\flat 3$, $\flat 5$, 7) : B-D-F-A \flat , Bdim7, B $^{\circ}$

다음은 같은 으뜸음 조인 C 장조와 c 단조 단음계에서 구성되는 3 화음과 7 화음의 코드 네임을 나타낸 것이다.

장조

코드	C	Dm	Em	F	G	Am	Bdim
3 화음	C	Dm	Em	F	G	Am	Bdim
7 화음	CM7	Dm7	Em7	Fm7	G7	Am7	B \circ

단조

코드	Cm	Ddim	E $^{\flat}$ aug	Fm	G	A $^{\flat}$	Bdim
3 화음	Cm	Ddim	E $^{\flat}$ aug	Fm	G	A $^{\flat}$	Bdim
7 화음	CmM7	D \circ	E $^{\flat}$ +7	Fm7	G7	A $^{\flat}$ M7	Bdim7

모든 사람을 위한 즐거운 배움터
라임 사이버문화센터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비스 문의

홈 페이지 : www.dongacc.com
모바일 홈 : m.dongacc.com
안내 전화 : 02-782-7820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동성빌딩 6층 (KBS 본관 앞)

본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2000 by edulime.corp. All right reserved.

